

새해 바뀌는 법·제도

연명의료결정법 2월부터 본격 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강화

올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에서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부분이 올해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24개 직군이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으로 국한됐었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화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한다.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연구가 병행 지원된다.

△치매 인지지원등급 신설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연구

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 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 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됐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450개를 추가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현 12.9%에서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10개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했다. 단,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유지한다.

주최: 기자 hjoo@koreanurse.or.kr

신년사

2018년 도전의 한 해를 맞으며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간호사신문 사장

전국 38만 간호사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병원과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24시간 환자 옆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미비한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돼 간호사가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의 결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습니다.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해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법이 본격 시행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에 관한 개선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의견을 개진해 올해부터는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5%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의 ‘무면허의료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아 보건교사의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와 함께 학교 보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온 결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저열당 쇼크로 쓰러진 학생에

를 인적 자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계로 개편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보건 의료체계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OECD 국가평균의 두 배 이상인 과잉 병상 및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시키고 지역 사회 보건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밖에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마련으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7년에는 유류간호사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 1191명인 88% (12월 18일 기준)가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출범초기인 2015년 25.4%에 불과했던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률이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를 활성화해 병원 내 태움 문화, 임신순번제 등 모성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막고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해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2018년 새해도 지난해와 같이 우리에게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책임과 열정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새해 소망이 뜻대로 이뤄지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 일정

• 당연직 부회장 확정 통보	1월 4일(목)	• 후보자 선거운동 홍보물 제출 마감	1월 19일(금)
• 후보자 추천 마감	1월 10일(수)	• 홍보물 인준	1월 24일(수)
• 대의원, 교체대의원 명단 제출 마감	1월 16일(화)	• 선출직 부회장 후보 교체 마감	1월 31일(수)
• 후보자 확정 통보	1월 16일(화)	• 대의원 교체 마감	2월 9일(금)
• 선거일 및 후보자 공고	1월 18일(목)	• 임원 선출(대의원총회)	2월 21일(수)

*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선거관련 일정, 선거운동관련 지침, 선거 홍보물 제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에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행복한 간호사가 만드는 행복한 병원, 푸르덴셜생명이 응원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간호사분들이 행복할 때 환자 역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르덴셜은 간호사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의 중요한 재정계획’에서부터 ‘자기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푸르덴셜생명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를 통해 만나보세요!!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란?

푸르덴셜이 직접 병원 또는 인근의 모임 장소로 찾아가 간호사를 위한 세미나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50인 이상의 간호사로 구성된 병원, 모임, 단체 등
- 세미나 구성:
 - 특강 1. 간호사 Dream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재무설계 솔루션
 - 특강 2. 간호사 Look을 완성하다!! 간호사를 위한 Make-up class
- 신청 및 문의: “찾아가는, 간호사 특별 세미나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요. 전화: 02-2144-2163, 2132 문자/카톡: 010-5530-1881

